

폭동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자바 문화의 지속과 변화: 이슬람과 전통 사이에서*

김형준

강원대 인류학과

수하르토 체제의 붕괴라는 커다란 정치적 변혁을 경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의 퇴임 직전부터 시작하여 지역적 수준에서의 폭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여러 지역 중 자바섬에서 발생한 폭동의 전개 양상과 사후처리 방식 그리고 폭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자바 문화의 일면을 파악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는 자바 폭동에 대한 설명 양식과 폭동의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을 검토한 후, 이러한 특징을 전통 자바 문화라는 맥락내에서 해석할 것이며, 마지막 절에서는 집합적 행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근 보고되어 왔던 이슬람 부흥 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통 자바 문화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보다 균형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된 폭동 혹은 집합행동에 대한 연구 경향과는 달리 폭동 과정에서 표출된 행동과 그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행위자들이 갖는 문화적 전통과 세계관 역시 폭동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1. 머리말

1998년 5월에 발생한 중부 자바 수라까르따(Surakarta: 아래에서는 관행에 따라 솔로[Solo]라 불릴 것임) 지역에서의 폭동은 수하르토의 사임을 촉발시킨 사건 중의 하나였다. 방화, 약탈, 파괴, 테러, 강간으로 점철된 폭동의 잔혹함,¹⁾ 그리고 대규모 군중 집회가 폭동으로 진화되었다는 이유에서, 솔로 폭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예외적인 사건으로 이해되기 쉽다. 즉 30년 이상의 폭압적인 전제체제 아래에서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민중이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공간을 획득하게 되자, 집단 히스테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솔로 폭동은 여타의 국가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시위가 폭동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한 결과이며, 단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뿐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1997년도 강원대학교 기성회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글은 동남아시아 연구회 월례 모임에서 발표되었으며,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홍석준 선생과 다른 회원들에게 감사한다.

1) 솔로 폭동을 통해 33명이 사망했으며, 500여 곳의 상점, 사업장 등이 파괴, 방화되었고, 전체 피해 액수는 4575억 루피아 정도였다고 한다 (Noegroho & Irawa eds., 1998: 25-27).

집합성(collectivity)에 의해 군중들의 과감한 행동이 가능했고, 시위가 폭동으로 전화될 수 있었음은 부정될 수 없지만, 폭동의 발생, 전개, 종결을 군중들의 집합성과 즉흥적인 면에만 귀속시킬 경우, 이 폭동을 통해 표현된 자바인의 문화적 특성과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폭동 상황에서 군중들의 행동은 즉흥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문화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했다. 수하르토 하야 이후에도 폭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일지라도 이들 폭동 과정에서도 솔로 폭동과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고 있음은 솔로 폭동이 군중의 즉흥성 혹은 히스테리적 심리상태와 같은 요인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글의 목적은 자바에서 발생한 폭동과 그에 대한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자바 문화의 일면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보고되어 왔던 이슬람 부흥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통 자바문화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보다 균형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된, 폭동 혹은 집합행동에 대한 연구 경향과는 달리 폭동 과정에서 표출된 행동과 그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행위자들의 문화적 전통과 세계관 역시 폭동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바에서의 폭동과 유사한 양식의 폭동이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 자바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종족들의 상이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 때문으로, 자바 이외의 지역에 대해 본 연구자가 갖는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이런 지역에서의 폭동을 적절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의 분석은 다른 인도네시아 지역에서의 폭동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비교 작업을 통해서만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II. 아묵 마사(Amuk Massa)로서의 폭동

군중들의 집단적 행동을 기술하기 위해 이용되는 표현 중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운죽 라사(unjuk rasa), 데모(demo), 끄루수한(kerusuhan), 아묵(간) 마사(amuk(an) massa)이다. 이 중 '표현하다'라는 의미인 운죽(unjuk)과 '감정'이라는 의미를 갖는 라사(rasa)의 합성어인 운죽 라사와 영어 임차어인 데모는 상호 교환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파괴, 방화, 약탈, 사상자 없이 진행된 시위를 지칭한다. 데모 혹은 운죽 라사 과정에서 군중의 요구가 적절하게 수용되지 않은 결과로 파괴, 방화, 약탈, 갈취, 폭력 행위가 발생하거나, 운죽 라사 없이 이러한 행동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을 때, 끄루수한(kerusuhan) 혹은 아묵(간) 마사(amuk(an) massa)라는 단어가 이용된다.²⁾ 운죽 라사가 끄루수한 혹은 아묵 마사로

2) 특정한 물리적 충돌의 규모를 구분할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때로 상이한 용어로 지칭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 근교 베크카시(Bekasi)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집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족 라사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으로, 그리고 끄루수한 혹은 아묵 라사는 행동을 통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한국어로는 폭동 혹은 소요, 영어로는 riot 혹은 disturbance로 번역될 수 있는 끄루수한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폭동의 규모나 피해 정도가 분별될 수 없기 때문에, 끄루수한은 수만 명의 군중이 대규모의 약탈이나 방화를 행하고 수백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경우나 수백 명의 군중이 경미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모두를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바의 세 도시가 끄루수한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신문 기사에서, 세 도시의 피해 정도는 달랐지만 모두 끄루수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³⁾

아묵 마사의 폭동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폭동 과정에서 보여지는 군중의 파괴적, 일탈적 행동을 지시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차이는 파생어의 활용에도 반영되어서, 끄루수한의 동사형인 merusuhkan(머루수간)이 폭동 기사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 아묵 마사의 동사형인 diamuk massa(디아묵 마사) 혹은 mengamuk(멍아묵)은 빈번하게 사용된다. 끄루수한과 아묵 마사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단어의 선택이 필자의 취향에 달려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두 단어 사이에는 미묘한 의미론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묵 혹은 아묵(amok)은 영어로 임차되어 완전히 동화된 흔치 않은 말레이어 중의 하나이다. 이 단어가 영어로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말레이인과의 초기 접촉 과정에서 서구인이 아묵이라는 단어로 지칭되는 현상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16세기 자바 사람에 대한 기술에서 바르보사(Barbosa)는 '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 모두를 살해하는 사람[자바인]이 있는데 이들을 아묵코(Amuco)라고 불렀다'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쿡(Cook)은 1772년의 저술에서 '아묵 상태에 빠짐(run amock)은 아편에 취한 것과 같아서,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집밖으로 뛰쳐나가,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걷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모두를 살해한다'라고 적고 있다 (Oxford English Dictionary). 탐험가들에 의해 보고되었던 아묵은 점차 영어로 동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run amok 혹은 go amok은 원래 부여된 '미친 듯이 [적을] 공격하고, 무차별적 살인을 행하는 광란상태에 빠짐', '타인에 대한 무

단 행동에서 시위대들이 한 명의 노동자를 집단 폭행했고, 이들과 진압군경이 충돌하면서 3명의 진압군경과 23명의 시위대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끄다올라탄 라캇(Kedaulatan Rakyat: 이하 KR)誌는 이 사건을 운족 라사 과정에서의 충돌이라고 보도한 반면, 콤포스(Kompas)誌는 파업이 끄루수한으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Kompas, 1/7/98; KR, 1/7/98). 이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집단 행동의 규모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족 라사와 데모는 파괴, 방화, 약탈, 그리고 사상자 없이 진행된 집단 행동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3) 떠갈(Tegal)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이 두 대의 차, 네 대의 오토바이, 수십 채의 상가와 주택, 세 채의 빌딩, 두 군데의 예배당을 파괴하였고, 짜안주르(Cianjur)에서는 수천 명이 다섯 채의 상점, 한 군데의 예배당, 두 대의 차를 파괴한 반면, 투반(Tuban)에서는 수천 명이 들을 던져 열 채의 가옥에 있는 유리창을 깨뜨렸다 한다 (Kompas, 19/6/98).

차별적이고 뚜렷한 동기 없는 폭력'(Littlewood, 1996: 249)이라는 뜻 이외에도 '난폭하게, 미친 듯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서구인의 보고에서 아묵 상태에 빠진 사람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었던 반면, 인도네시아 신문 보도에서 아묵은 대중을 의미하는 영어 임차어, '마사'(massa: mass)와 함께 빈번하게 이용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아묵 마사(amuk massa)라는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표현이라 추측된다. 신조어로서의 아묵 마사가 전통적인 아묵 개념을 집단적 수준으로 확장시킨 것인지, 혹은 새로운 의미가 첨가된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 의미가 새로운 의미로 대체된 것인지의 여부는 폭동을 바라보는 자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아묵 마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아묵 마사와 관련된 기사에 '이모시'(emosi), '스뽀탄'(spontan)과 같은 영어 임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으로, 이모시가 이용된 몇몇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방화가 일어나기 이틀 전 수십 명의 주민들이 매춘کم플렉스 내에 있는 가옥을 파괴하여 [매춘کم플렉스의 폐쇄 요구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매춘부들이 계속 영업을 했기에, 주민들은 감정적이 되었고(emosi), 방화와 파괴가 발생했다고 비릿씨는 이야기했다 (KR, 28/6/98).
- [찌안주르에서의 폭동에 대한 설명] 다섯 채의 상점, 한 군대의 예배당, 그리고 두 대의 차가 감정적인 군중(massa yang emosional)에 의해 파괴되었다 (Kompas, 16/6/98).
- [최소임금 인상에 대해]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가가는 설명 없이는, [노동자들의] 감정(emosi)이 불타오르고, 5월 13-14일과 같은 폭동이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걱정합니다 (MI, 2/7/98).

앞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모시'라는 단어는 폭동을 촉발시킨, 혹은 폭동을 지속시킨 심리 상태를 지시하고 있다. 즉 군중이 감정적으로 됨으로써 폭동이 야기되었고, 감정적인 상태에 놓인 군중이 파괴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모시'의 형용사형인 '이모시오날'(emosional)과 대립되어 이용되는 단어를 보면, '이모시'의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는데, 합리적(rasional), 체계적(sistematis), 계획적(terencana), 구조를 가지고 있는(terstruktur), 논리적(logis)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폭동을 야기한, 혹은 폭동 속에서의 군중들의 심리상태가 '이모시'라는 단어로 설명됨으로써, 폭동 자체가 무계획적, 비체계적이었으며, 군중들이 비논리적, 비합리적 상태에 놓여 있었음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스뽀탄'(spontan)이라는 임차어 역시 폭동과 관련된 기사에서 종종 발견된다. 이 단어는 폭동이 촉발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 spontaneous의 의미 - '외적 충격 없이 자연스러운 충동으로부터 일어나는', '계획이나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 를 갖는다. '스뽀탄'이 사용된 예를 보면, 총소리를 들은 사람이 반사적으로(spontan) 경찰에 연락하고, 연설을 듣던 중 쥐를 발견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dengan spontan) 의자 위에 올라가며, 항상 왼손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무의식적으로(spontan) 원손을 이용하여 먹고 마시게 된다. 폭동과 ‘스뽀탄’이라는 단어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이용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5월 13-5일 자카르타를 파괴했던 폭동에 대해 이 지역의 사령관인 육군 소장 샤프리 삼수딘은 ‘이 폭동이 자연발생적이었다(spontan)’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TI, 20/6/1998b).
- 몇몇 주민에 따르면, [보고르에서] 목요일에 발생했던 16채의 빌라, 디스코텍, 안마 시설소의 파괴는 자연발생적으로(spontan) 일어났다 (Kompas, 2/8/98).
- 5월 폭동의 촉발 요인은 대중의 자연발생적 반응(spontanitas: spontan의 명사형)이 아니라 아주 잘 조직된 집단이다 ... 체계적이었던 폭동의 양상을 볼 때, 이 폭동이 자연발생적으로(spontan)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TI, 20/6/1998).
- [지역 경찰 서장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이리안 자야에서의 폭동)은 자연발생적이지(spontan) 않았다. 사람들이 가져왔던 것발은 동일했고 ... 각 지역에서 요구된 사항 ... 역시 동일했다 (Kompas, 7/7/98).
- 중부자바의 지역경찰 서장 누르파이지씨는 ... 폭동이 자연발생적 행동(tindakan[행동] spontanitas)이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 폭동을] 코오디네이트한 세력이 없다 (Republika, 16/6/98).
- 폭동에서 ... 23명의 진압군경이 상처를 입었다. 지역 경찰은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번 아묵과 폭동이 공작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감정적 행동(aksi [행동] emosi spontan)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MI, 7/5/98).

처음 두 기사에 나타난 것처럼 폭동의 발생과 폭동에서의 군중의 행동은 ‘스뽀탄’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폭동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스뽀탄’의 의미는 다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조직된’, ‘체계적인’, ‘계획적인’, ‘코오디네이트된’, ‘공작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폭동과 관련된 기사에서 ‘이모시’와 ‘스뽀탄’과 같은 단어가 빈번하게 이용됨으로써 폭동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폭동은 감정적 상태에 놓여 있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했던 군중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그 진행 과정 역시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 폭동의 성격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아묵의 전통적인 의미와도 상통한다. 아묵의 주체가 개인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이며 동기가 없는 폭력을 의미했다면, 아묵 마사는 군중들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참여에 따른 무차별적, 무계획적인 폭력 사용을 의미한다.

III. 자바 폭동의 선택성과 의도성

최근 자바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폭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아묵 마사, 이모시, 스뽀탄과 같은 단어들이 전달하는 의미와는 상반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폭동이 비의도적이고 즉흥적으로 시작되었고, 군중들이 뚜렷한 의도와 의식 없이 폭동에 참가했다는 해석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솔로와 뿌르워르조(Purworejo) 폭동을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화인에 대한 소규모 공격이 계속되어 보수할 여유가 없어서인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1998년 7월말의 솔로 거리는 5월 폭동의 자취를 상당 부분 간직하고 있었다. 시커멓게 타버린 건물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고, 깨진 유리창은 새것으로 교체되지 않았다. 보수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듯 거리로 향하는 쪽을 판자로 막은 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 여기저기 보였고, 오토바이와 차를 방화하던 중에 녹아버렸던 아스팔트를 땀질한 자국이 도로 곳곳에 남아있었다. 7월의 솔로 거리를 보며 발견할 수 있었던 특이한 광경은 변화가에 위치한 건물 중 일부만이 폭동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떤 건물은 시커멓게 타버린 모습 그대로이거나 보수 중인데 비해, 이웃 건물은 어떤 피해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특정 거리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솔로의 다른 거리와 솔로 인근의 소도시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다. 5월 폭동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로 변한 전(前)공보부 장관 하르모꼬씨의 집이 있는 호화 주택가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서, 그의 집 인근에 있는 가옥들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는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한 화인 기업가에 따르면, 폭동 당시 군중의 주요 공격 대상은 화인과 수하르토 일가의 통제 하에 있는 기업과 관련되었거나,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가와 사무실이었다고 하며, 인도네시아인 소유의 상가 중 대다수는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일간지에 보도된 화인 기업가 역시 군중들의 공격 대상이 화인 소유 상점, 사업장, 가옥 중 일부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건물에 이웃한 화인 소유의 가옥과 사업장이 파괴되거나 방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Kompas, 18/06/98). 이들의 주장은 솔로 폭동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도 확인될 수 있어서, 화염에 휩싸인 건물, 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리의 군중과 함께 피해를 입지 않은 건물이 같이 찍혀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Noegroho & Irawa eds., 1998: 43).

중부 자바 뿌르워르조에서의 시위는 98년 6월 26일 발생했다. 수백 명의 군중들이 관공서에 모여 매춘 지역의 폐쇄를 요구하던 중, 시위대의 일부가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매춘کم플렉스로 이동하여 8채의 집과 주변에서 영업하던 몇 채의 집을 태워버렸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 수영장과 가라오케에 방화하였고, 이 후 수천 명으로 불어난 군중은 뿌르워르조에서 가장 큰 영화관으로 이동하여 전소시켰다. 폭동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며, 광장으로 이동한 군중은 자진 해산했다.

뿌르워르조의 폭동은 아묵 마사로 규정되어서,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뿌르워르조에서의 아묵 마사'였다. 이러한 기사에 걸맞게, 이 지역 사회정치국의 고위 관료는 뿌르워르조 폭동이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이 폭동을 조종한 세력이 없었다고 코멘트했으며, 한 종교 지도자는 자신이 군중들의 감정(emosi)을 잠재우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언급함으로써, 폭동 속의 군중들이 감정적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KR, 27/6/1998).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폭동이 발생하기 전 지역 주민들이 근처의 비정규 이슬람 학교(pondok-pesantren) 학생에게 매춘지역 폐쇄에 동참해달라는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는 폭동을 아묵 마사로 규정한 기사가 전달하는 메시지와는 달리, 매춘 지역 폐쇄를 위한 집단적 행동이 이미 계획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리적 힘을 이용한 매춘 지역의 폐쇄가 계획된 것이라고 할 때, ‘스쁜탄’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 부분은 원래 계획에 없던 수영장, 가라오케, 영화관의 방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아묵 마사의 의미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방화 대상이었던 수영장, 가라오케, 영화관은 매춘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군중들이 이동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건물들에는 어떤 피해도 가해지지 않았다. 경찰 서장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비도덕적인 장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상을 파괴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직선적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솔로와 뿌르워르조 폭동은 감정적인 군중들의 즉흥적인 행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이고 동기 없는 파괴와 폭력보다는 선택적인 공격이 행해졌다. 이는 군중들이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비록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체계적인 방식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준다. 폭동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특질은 아묵 마사가 함축하는 메시지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묵 마사로 규정된 자바의 다른 폭동에서도 솔로와 뿌르워르조 폭동에서 나타난 모습이 드러난다. 그 결과, 폭동이 발생하자마자 상점과 가옥의 소유주들은 ‘Pribumi’(토착인), ‘Jawa Asli’(토착 자바인), ‘Pro Reformasi’(개혁 지지)와 같은 글을 밖에 적어 놓고, 군중들의 집단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KR, 8/09/98). 이들의 기대는 자신이 타고 있던 버스가 군중에 의해 세워져서 강간의 위협에 직면했던 한 여인에게도 적용되었다. 유난히 흰 피부를 가지고 있던 그녀를 본 군중들이, “이 여자를 공격하자, 이 화인을 강간하자”라고 고함쳤는데, 놀란 와중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화인이 아니라 바탁(Batak)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고, 군중들은 그녀를 그냥 보냈다고 한다 (TI, 20/6/1998a). 폭동에서 나타났던 군중들의 심리적 상태는 보요랄리(Boyalali) 폭동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용의자에 의해서도 적절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은 방화를 행하지도 선동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군중들이 한 상점을 공격할 때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다고 한다. 이는 그 상점이 자바사람의 소유였기 때문으로 그는 방화를 하고자 한다면, 자바인 상점이 아니라 화인 상점에 해야 한다고 군중들에게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KR, 19/8/98).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아묵 마사, 이모시, 스펀탄과 같은 단어로 설명되는 자바에서의 폭동이 이런 단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와는 상반된 방식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각각의 폭동에서 동일한 정도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계획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며, 폭동 과정에서의 파괴, 방화는 선택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군중들은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택된 대상을 공격했다. 자바 폭동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은 몇몇 인도네시아인과 단체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시민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폭동의 체계적 성격을 고려해볼 때, 폭동이 자연발생적으로(spontan) 일어났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으며(TI, 20/6/1998), 한 신부 역시 팰렘방에서의 폭동이 우연히 혹은 민중의 자연발생적인(spontan) 행동에 기초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Kompas, 15/8/98). 하지만 이런 주장은 소수 의견으로, 폭동 관련 기사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될 뿐이다.⁴⁾

자바 폭동에서 보여지는 선택성과 의도성, 그리고 폭력성은 자바인의 행동 양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대비된다. 자기 감정의 직설적인 표현과 갈등의 표출을 극도로 억제하며, 거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한 자바 사람이(Geertz, 1960; Guinness, 1986; Kim, forthcoming) 폭동 상황에서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거리낌없이 행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한 편으로 폭동 기사에서 강조되고 있는 감정적 상태, 무의도성 및 무차별성과 폭동의 실제 양상 사이의 불일치가 유지·재생산될 수 있는 배경 역시 쉽게 이해될 수 없다. 아래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이를 통해, 폭동에 참가한 자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규정되고, 문화적으로 주어진 방식에 따라 행동했으며, 폭동에 대한 해석 역시 이러한 문화적 틀 내에서 이루어졌음이 주장될 것이다.

IV. 집합적 불만 표출의 전통

자바인이 지향하는 가치 중의 하나는 슬라멧(slamet)으로, 이는 주변의 일이 예측된 방식대로 흘러가고, 돌발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Koentjaraningrat, 1960: 85). 슬라멧은 자바인들이 행동의 이상형으로 간주하는 알루스(alus: 세련된, 우아한, 품위 있는, 예의 바른), 고통 로용(gotong-royong: 호혜성에 기초한 협동) 등의 개념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세련된 행동을 하기 위해 자기 감정의 표현을 최소화하고, 고통 로용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웃과 협조할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슬라멧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자바 사회에도 타인과의 갈등이 유발될 상황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슬라멧의 상태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바인들은 타인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그 외적 표현이 최소화될 수 있을 간접적인 방식, 하지만 갈등 상태에 놓인 사람 혹은 집단이 서로의 불만을 감지할 수 있을 방식으로 표현하려 한다.⁵⁾ 그 대표적인 예가 갈등과 불만을 제삼자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이

4) 전통 말레이 사회에서 발생했던 개인적 아묵을 분석한 학자들 역시 아묵이 개인의 계산된 행동에 기초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Gullick, 1989: 240-1). 이런 입장에 따르면, 아묵이 전체주의적 지도자에 대해 말레이인이 의존할 수 있었던 최후의 거부권이라는 주장(Gullick cited in Aderibigbe & Pandurangi, 1995) 혹은 아묵이, 극도로 억압된 사회문화적 조건 하에서 전통에 의해 재가되었고 문화적으로 용인되었던 폭력 형태라는 주장(Carr and Tan cited in Aderibigbe & Pandurangi, 1995)이 가능해진다.

5) 본문의 자료는 1998년 7월에 행해졌던 열 명의 족자까르파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조사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사 대상자가 한정되었다. 조사 대상자 중 세 명은 대학교수, 두 명은 대학생, 두 명은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 나머지는 상인, 사무직 근로자, 양계업 종사자였으며, 이들 중 두 명은 비(非)자바 사람이었다. 여섯 명은 족자까르파 시내에, 네 명은 외곽의 농촌에 거주했으며, 연령상으로 20대가 네 명, 30대와 40대가 각각 세 명이었다.

소문으로 유포되고, 궁극적으로는 갈등 상태에 놓인 상대방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의 표현이 권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전략은 불만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킨다.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략은 여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소문을 통한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 전략보다 적극적인 갈등 표출 양식은 일상적으로 행하던 것과 상반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형제에게 불만을 품게 된 사람은 형제의 집에서 자주 놀곤 하던 자신의 아이를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자바인들은 평소의 말투, 말씨(존댓말/반말)와는 상이한 말투나 말씨가 사용되거나, 매일 만나던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초대할 사람이 오지 않거나 하는 등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자신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는지를 의심하게 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될 때, 갈등 상태에 놓인 두 사람(집단) 중 한 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갈등 상태에 놓인 개인(집단)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그 상태가 지속될 때, 이는 자바인의 표현에 따르면, '원한의 씨앗'으로 발전한다. 불만과 갈등이 원한으로 발전되었을 경우에도, 개인(집단)간의 긴장 관계는 대체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표출된다. 좋은 예가 조딱안(jothakan)으로, 이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집단)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며, 만나게 되었을지라도 일체의 상호작용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한 자바인에 따르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여자 문제로 원한을 갖게 된 후, 5년 동안 서로 말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대화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길을 두고도 먼길로 돌아다녔다고 한다.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원한을 갚는 방법 역시 존재하는데,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한 복수나 폭력 행사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신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폭력(살인) 청부업자나 두꾼 산땃(dukun santet: 초자연적 존재 혹은 힘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과 같은 매개자가 이용된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나 가능한 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갈등, 불만, 원한을 표출하기 위해 자바인들은 주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을 이용하며, 적극적인 방식이 이용될 경우에도 매개자를 개입시킴으로써, 외관상 자신의 개입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세련된 행동 양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자바 사회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갈등과 불만의 표출과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6) 이런 이유에서, 자바인들은 소문, 특히 자신에 대해 회자되는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한다. 슬라뫼트의 개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돌발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는 상태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심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행동이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좋은 예가 도둑이 적발되었을 때인데, '도둑이다'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사람들은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용의자에게 행사한다. 한 제보자의 기억에 따르면:

집 근처에서 도둑이 잡힌 적이 있었다. 30여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며 그를 구타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몽둥이를 이용하기까지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 나왔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지만, 구경꾼 중 누구도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다. 공기총을 들고 나와 그를 쏘려던 사람도 있었는데, 주변사람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에 그의 목숨이 부지될 수 있었다. 조금 더 지나자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적실 정도였고,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듯 했다. 몇 사람이 그의 몸을 땅에 깔다시피 해서 경찰에 인계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경찰들이 그의 옷을 벗긴 후 다시 때렸다고 한다.

이런 식의 집단적인 폭력 행사는 도둑뿐만 아니라 살인, 간통 그리고 혼전 남녀의 불순한 만남 등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집단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것에 연루된 사람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해서, 특정 사건이 '외부인'이라 간주되는 사람에 의해 일어져졌을 때만 집단적인 대응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공동체 구성원이 그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둑질, 간통, 살인을 행했을 때, 이는 일상적인 규범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둘째, 일탈적인 행동을 행한 사람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그리고 특정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이런 식의 집단적 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집단적 대응은 외부인이 공동체의 경계를 침범하였을 때 작용하는 자기보호 기제라고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⁷⁾ 또한, 이러한 성격 때문에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거나 물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1966년 집권하게 된 후 수하르또는 이전 정권 하에서 활성화되었던 지역적 수준에서의 대중 운동을 억압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집권 후 10여년이 지난 뒤부터 뚜렷한 효과를 가져왔다. 짧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대중의 정치적 욕구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정치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대상으로 한 집합 행동에까지 확대되었다. 지역적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의 경제 정의를 요구하는 움직임, 사회문화적 차별, 불평등을 공론화하려는 시도는 공권력에 의해 억압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억압적 분위기로 인해 공권력의 사용 없이도 가시적인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억압적 분위기 하에서도 집단적 대응의 전통은 자바 사회에서 유지되었다.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기는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했으리라고 추측된다. 첫째, 집단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을 사건은 특정 지역의 전통에 따라 규정되었고, 개인 혹은 집단간의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7) 오래된 원한 관계가 있을 경우, 집단 행동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오래된 원한이 집단 행동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한 촉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에 정치적 안정과 질서유지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다. 둘째, 집단 행동의 단위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경계를 넘어서까지 집단 행동이 확대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상당수의 사건이 마을 혹은 읍 수준의 관료에 의해 자체적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과 군인 역시 자바인이었기 때문에, 집단 행동이 특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 국한될 경우 이들 역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았다.

집단적 폭력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용인되어 왔을지라도,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바인들은 집단 행동에 대한 인식(perception)을 형성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집단적인 폭력에 대해 뚜렷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전통으로, 집단 행동은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행동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집단에 의해 창출된 순간적인 혼돈의 시기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과 동일시될 수 있으며, 자바인들은 집단에 의해 창출된 혼돈 속에서 법적 제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 세련된 행위를 해야 할 강제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직·간접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집단 행동에 대한 인식은 폭동에서 보여진 자바인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집단적으로 창출된 혼돈 상태인 폭동에서 자바인들은 외부의 도둑과 간통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을 거리낌없이 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유로운 욕구와 불만의 표출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추궁당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하에 행해졌는데, 이런 믿음은 군중에 대한 진압 군경의 미온적 태도, 그리고 폭동 후 정부의 태도를 통해 재확인될 수 있었다. 폭동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의 수는 극소수였고, 폭동과 관련되어 법적인 책임을 진 사람은 거의 없으며, 폭동에 연루되었던 사람을 체포하려는 시도 역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폭동에서의 주요 공격 대상이 화인과 교회였다는 사실 역시 집단 행동의 전통이 하나의 모델로 폭동상황에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마을 수준에서의 집단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위뿐 아니라 그것을 행한 사람의 정체성 역시 중요한데, 일반적인 자바인의 시각으로 볼 때, 화인과 기독교도는 외부인의 범주에 속하며, 자바인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입혀 온 집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폭동 상황 하에서 군중들은 아묵 마사, 이모시, 스뽀만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와는 달리, 문화적으로 규정된 양식에 따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으며, 폭동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처리 과정 역시 관련된 사람에 의해 예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자바 폭동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행동과 감정 표출이 전통적으로 용인된 집합적 행동 양식에서 그 모델을 빌려온 생각할 수 있는(thinkable)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폭동의 발생과 전개를 강조하는 보도 태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아래 절에서는 솔로 폭동에 대한 족자까르따(Yogyakarta: 관행에 따라 족자라 불릴 것임)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여, 폭동을 바라보는 자바 사람들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검토될 것이다.

V. 집합적 행동의 정당화

제보자들은⁸⁾ 자바에서의 폭동, 특히 솔로 폭동이 이 지역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솔로 폭동의 경우, 군인과 이들에 의해 조종되는 세력이 약탈, 파괴, 방화, 강간의 배후 세력이었는데, 이들은 솔로 주둔군이 아니라 자카르타에서 왔던 군인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음모설의 증거로서, 몇몇 제보자들은 솔로 폭동이 있기 전 건장한 체구의 남자들이 자카르타에서 솔로로 향하는 열차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목격담을 제시했다. 한 제보자는 사회정치국에 근무하는 친척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말해주었다. 즉 군인과 이들이 조종하는 불량배를 태운 기차가 솔로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회정치국에 알려졌는데, 다섯 차례 중 한 차례만 이들이 솔로로 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족자에서 발각된 후 자카르타로 돌려보내졌다고 한다. 솔로에 도착한 외부 세력은 솔로 및 인근의 불량배와 연합하여, 시위 군중을 조종하고 평화적 시위를 폭동으로 전화시켰다고 한다. 외부에서 온 군인들과 불량배 세력을 조직적으로 이용한 배후 세력으로는 수하르토의 사위인 브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가 이견 없이 지목되었는데, 그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히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⁹⁾

제보자들의 직업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각주 6> 참조), 이들에게서 동일한 주장이 제기되었음은, 솔로 폭동에 대한 음모설이 족자 사람들의 공식적인 담론에서 주요한 레퍼토리로 수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음모설의 진위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공식적으로 군인의 폭동 사주 및 참여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음모설이 족자 주민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 중 하나가 군인과 일반인 사이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관념이다. 즉 일반인은 왜소하고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고, 군인들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기에 양자는 외관상 쉽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위에 군인이 참여하여 이를 폭동으로 전화시켰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가 폭동에 참여했던 것이 목격되었다면, 이는 군인들의 참여와 동일시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군인들의 폭동 참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받았을 때,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 참여했던 것이 목격되었다는 답변을 제시하였고, 이것만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마쳤다는

8) 이 절의 주제가 폭동에 대한 자바 사람들의 해석이기에 솔로 사람이 아닌 족자 사람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폭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보다 균형된 시각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9) 1998년 5월의 자카르타와 솔로 폭동에서는 집단 강간이 보고되었다. 이는 역사상 그 선례를 찾아 보기 힘든 행위로 자바 사람들에게도 많은 충격을 주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도 파괴, 폭력, 방화에 대한 것과 유사한 설명양식이 존재하는데, 제보자들에 따르면, 브라보워 수비안또는 성불구자이고, 자신의 성적 불만 때문에 휘하의 군인들로 하여금 강간을 자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태도를 취했다.

불량배의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 몇몇 제보자들은 폭동 당사 오토바이를 타고 앞장서서 건물을 파괴했거나, 방화를 주도했던 세력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렇게 조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은 불량배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였다. 한 제보자는 폭동의 선두에 있던 사람 중 일부가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했다는 친구의 말을 인용하며, 술을 먹고 집단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집단은 불량배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불량배로 간주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제보자들은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지만, 그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불량배와 일반인의 구분이 가능함을 강조했다.¹⁰⁾

군인과 불량배의 연루설을 보여주기 위해 제보자들이 제시했던 또 다른 근거는 폭동 진압 과정에서 군경이 보였다든 소극적인 대처 방식이었다. 제보자들은 군인과 경찰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했다면, 시위가 폭동으로 쉽게 전화되지 않았을 것이며, 군경의 소극적 대응은 이들과 외부 세력 사이에 일종의 목계가 있었거나 이들이 상부로부터 특정한 지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보자들은 폭동이 전개되려는 순간 군경이 폭동 현장에서 사라졌으며, 폭동의 전과정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쉽사리 찾아볼 수 없었다는 목격담을 제시했다. 평소 일반인들이 느끼던 경찰과 군인에 대한 위압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찰과 군인이 강력한 진압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파괴와 방화 행위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었으리라는 추론을 하게된 군경의 강력한 진압 의사가 없었기에 시위가 폭동으로 전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제보자들이 음모설을 믿었고 또한, 이들의 믿음이 재생산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이와 유사한 주장이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솔로 폭동과 관련된 솔로 포스(Solo Pos)의 기사를 요약·정리한 책자에 따르면 솔로 폭동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교사와 사립대학 졸업생인 증인들은 독특한 옷을 입은 집단이 [솔로] 폭동의 앞잡이었다고 말했다.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집단을 구성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들은 주민들이 파괴에 동참하도록 거리를 돌아다니며 선동했다.” ... 증인들은 보안군[경찰과 군인]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며, 방화와 약탈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A. Noegroho & B. Irawa eds., 1998: 25).

폭동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 모두가 이런 논조를 보이지는 않지만, 음모설을 제기하는 기사를 찾아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보도 성향은 일반인들 사이에 유포된 음모

10)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던 제보자 중 한 사람은 방화와 약탈을 자행한 사람의 처벌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이들을 쉽게 검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즉 불량배들이 이런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디스코텍에 출입하며, 노름을 하는 사람들을 검거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폭력배 연루설이 제보자들에 의해 수용된 정도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설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외부 세력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이해되는 폭동에 군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제보자들은 민중들이 겪어 왔던 고통을 우선적으로 지목했다. 오랜 독재와 부패, 경제적 피해에 고통받던 민중들의 분노가 자연스럽게 표출된 결과 이들이 자연스럽게(spontan) 폭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한 제보자의 말처럼, 이번 폭동은 '그들의 배가 이야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약탈과 방화의 주요 대상이 화인이었다는 사실 역시 폭동이 민중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생필품 유통을 독점하는 화인들이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생필품을 매점매석함으로써 생필품 값의 폭등과 품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¹¹⁾ 이에 고통받던 군중이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자, 이성이 아닌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고 약탈과 방화, 파괴 행위를 자연스럽게 좇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군중들의 부화뇌동 격인 폭동 참여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또 다른 레토릭은 자바 사람들의 성격과 관련된다. 몇몇 제보자에 따르면, 자바사람들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선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향은 군중의 폭동 참여를 조장했고, 한 제보자의 말처럼 이들은, '광란의 시기에서 [갈이]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saqiki jaman edan, ora edan, ora keduman)라는 속담에 따라 행동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상적인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혼돈의 상황인 '광란의 시기'(jaman edan)가 도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미친 행동을 따라하지 않으면 (ikut-ikutan),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의 이 속담은 폭동이라는 혼돈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반인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폭동에 가담한 일반인들을 처벌해야 할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 그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부세력에 의해 야기된 폭동에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폭동에 연루되었으며, 순간적으로 이들을 감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원인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수준에서 오히려 이들이 불순 세력에 의해 이용·조종되었던 피해자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보자 중 누구도 폭동에 연루된 솔로 사람들에게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솔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마지못해 몇 사람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이후에도 이들은 또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며 일반인에 대한 처벌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 제보자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킨 '큰 도둑'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은 도둑'을 잡아서 무엇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제보자의 입장이 솔로 사람들의 잘못을 인정한 후 형성된 것

11) 흥미로운 사실은 상당수의 자바 사람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동참했었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자바인의 경우 상당한 양의 식약과 세제를 장롱 속에 쌓아 놓고 있었는데, 사재기에 동참했다는 비판에 대해 자신은 아주 소규모로 물건을 구입했을 뿐으로, 물건값의 등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창고 가득히 물건을 쌓아놓고 있었고, 이들이 생필품 가격의 폭등을 유발한 주역이었다.

이러면, 다른 제보자들은 솔로 사람들이 감정적이었다는 측면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었다. 즉 이성을 잃고 감정에 쌓인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폭동 당시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물건이 군중들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로 이용되기도 했다: “농촌 사람들이 랩탑을 가져가서 어디에 씁니까?” 즉 군중들이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었지, 그것을 실제 사용하거나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몇몇 제보자들은 약탈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처벌의 무의미함을 지적했다. 감정에 휩쓸렸던 상태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훔친 물건을 반환하였고, 이를 통해 이들이 의도적으로 약탈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는 것이다.¹²⁾

솔로 폭동에 대한 제보자들의 견해에서 드러나는 핵심적 요소들 - 외부 세력의 조종, 일반인들이 겪어 왔던 경제적 어려움, 집합적 상황에서 감정에 휩싸임, 자연 발생적 폭동 참여 - 은 집단적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해석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한 제보자는 자바인의 ‘합리화(정당화)하려는 태도’(sikap membenarkan)로 설명했다. 즉 어떤 행동 혹은 사건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그것이 발생한 상황과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이해 혹은 견해에 부합하도록 그것을 평가·해석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앞 절에 제시된 도둑에 대한 집단 폭력 사례를 이야기했던 제보자의 경우에도 ‘합리화하려는 태도’가 나타났다. 혼절시킬 정도로 도둑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적절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도둑이 지맛(jimat: 부적의 일종)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도둑은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지맛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날 정도로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식에 따르면, 아픔을 느끼지도 않고, 게다가 나쁜 짓을 행했던 도둑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이 가능해진다.

제보자들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자바 사람의 삶과 종교를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앤더슨이 지적한 상대주의적 종교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바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측면은 선악의 절대적 구분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이 개인의 지위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여부라는 앤더슨의 주장처럼(Anderson, 1965), 솔로 폭동을 바라보는 제보자들은 약탈, 방화, 폭력 자체에 대해 절대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폭동 발생의 상황과 그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행동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려 했다.

12) 생필품이 아닌 값비싼 물품만이 반환되었을 뿐으로, 이런 물품은 쉽게 처분될 수 없었기에 반환된 것이 아니냐는 계속된 질문에 대해 제보자들은 이러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물품 반환이 폭동에 참여한 군중의 비의도성을 보여주기 위해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VI. 맺음말

1998년에 일어난 자바에서의 폭동은 발생 지역의 광범위함, 지속성, 격렬함 등의 측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개인적 감정 표현의 억제, 타인에 대한 직접적 불만 표현의 억제, 물리적 폭력의 억제라는, 규범에 순응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된 자바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폭동에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와 언론 기관, 일반인 모두가 폭동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지 않았으며,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서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바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바 사람의 삶에는 개인 감정의 억제라는 일상의 규범이 순간적으로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공동체의 경계가 외부인에 의해 침범되었다고 개념화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대처가 용인되어지기도 한다.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폭력이 행사되었으며, 그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보다는 경계를 침범한 사람에게 지워지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집단적 대응의 경험과 전통은 폭동에서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폭동 상황에서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리라는 믿음 하에 약탈, 방화, 파괴와 같이 일탈적이고 비일상적인 행동을 행할 수 있었으며, 그 주요 공격 대상 역시 자바인들에 의해 외부인으로 개념화되는 화인과 기독교도들이었다.

비록 특정한 세력에 의해 폭동이 체계적으로 조종되지 않았고, 균중들의 자연발생적 힘에 의해 폭동이 전개되었던 측면이 전격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지만, 문화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 균중들이 행동했기에 폭동의 전개 방향을 개략적으로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선택적인 폭력, 파괴, 약탈 행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행동은 무차별적이지 않았고, 명백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폭동에 대한 일반인의 담론과 폭동 기사에서 강조되는 아묵, 이모시, 스펀탄 등의 표현은 폭동 하에서 일어난 행동의 의도성,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고, 희생자의 입장이 아닌 폭동을 일으킨 자의 입장에서 폭동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태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¹³⁾

모든 자바 사람이 이러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폭동 참여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개혁주의 이슬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집단이 이런 세력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통 자바 문화의 상대주의를 비난하고,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해 왔음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특정 행동이 알라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금지되어야 하

13) 이러한 경향이 신문 보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변화된 정치 상황일 것이다. 민중의 집합적 힘에 의해 수하르토의 퇴임이 가능했기에, 이들의 집합적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균중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보도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며, 그것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은 소수의견에 불과할 뿐으로, 언론을 통해서 혹은 일반인들의 담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여년에 걸친 이슬람 부흥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이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자바 전통과 분리된 세계관을 갖는 사람이 전체 자바인들 중 소수에 국한됨을 보여 준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바 사람의 세계관에 대한 논의에서 앤더슨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자바의 문화적 전통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Anderson, 1965: 29). 최근의 폭동에서 보여진 자바 사람들의 행동과 그에 대한 해석을 고려해 보면, 자바의 문화적 전통이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으며, 서구화와 개혁주의 이슬람이 전통적 세계관을 대치할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확산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하르토의 퇴진을 요구하던 대학생들의 시위 대부분이 폭동으로 전화되지 않았으며, 폭동 참여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소수에 의해서이지만 제기되고 있음은 전통 자바 문화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세력이 확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Aderibigbe, Y. & Pandurangi, A. 1995. "The Neglect of Culture in Psychiatric Nosology: The case of Culture Bound Syndr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1(4).
- Anderson, B. 1965. *Mythology and the Tolerance of the Javanes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Emirbayer, M & Goodwin J. 1996. "Symbols, Positions, Objects: Toward a New Theory of Revolutions and Collective Action." *History and Theory*. 35(3): 358-374.
- Geertz, C. 1960. *The Religion of Java*.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inness, P. 1986. *Harmony and Hierarchy in a Javanese Kampung*.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Gullick, J. M. 1989. *Malay Societ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Beginnings of Change*.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Kedaulatan Rakyat(KR). 27/6/1998. "Amuk Massa di Purworejo."
 _____, 28/6/98. "Giliran Kompleks WTS Daplang Dibakar."
 _____, 1/7/98. "Bentrok dalam unjukrasa Di Bekasi."
 _____, 19/8/98. "Sidang Kasus Kerusuhan 15 Mei, Lolos dari Maut, Harta Ludes."
 _____, 8/9/98. "Gara-Gara Isu Penganiayaan: Kebumen Geger, Puluhan Toko Dibakar."
- Koentjaraningrat. 1960. "The Javanese of South Central Java." In G.P. Murdock, ed., *Social Structure in Southeast Asia*, p. 88-115. Chicago: Quadrangle Books.

- Kim, H-J. forthcoming. "The Islamization of Other's Everyday Life: A Case from Yogyakarta." *Antropologi Indonesia*.
- Kompas. 18/6/98a. "Penjarahan Masih Berlangsung di Solo."
 _____, 18/6/98b. "Pertanggungjawaban Hati Nurani."
 _____, 19/6/98. "Tiga Kota Di Jawa Dilanda Kerusuhan."
 _____, 7/7/98. "Dibentuk Tim Pencari Fakta di Irja Jayapura."
 _____, 2/8/98. "Warga Puncak Datangi DPRD Bogor."
 _____, 15/8/98. "Daerah Sekilas, Palembang - Tim Relawan untuk Kemanusiaan."
 _____, 1/7/98. "Kerusuhan di Cibitung."
- Littlewood, R. 1995. "Psychiatry's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2(4): 245-268.
- Media Indonesia(MI). 7/5/98. "Menyusul Kerusuhan di Lapangan Hijau," Hentikan Kompetisi Ligin."
 _____, 2/7/98. "Industri untuk Pasar Domestik tidak Mampu Naikkan UMR."
- Noegroho & Irawa eds. 1998. *Rekaman Lensa Peristiwa Mei 1998 Di Solo*. Solo: Aksara Solopos.
- Oxford English Dictionary(Second Edition). 199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publika. 16/6/98. "Tolak Unjukrasa, Kampus Dilempari."
- Tempo Interaktif(TI). 20/6/1998a. "Mereka Ditelanjangi, Diperkosa dan Dibunuh."
 _____, 20/6/1998b. "Wawancara Sri Palupi: Kerusuhan Dilakukan oleh Kelompok Terorganisasi Rapi."

CHANGE AND CONTINUITY IN JAVANESE CULTURE: BETWEEN ISLAM AND LOCAL TRADITION

Hyung-Jun Kim

Department of Anthrop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hile experiencing unprecedented political turmoil, Indonesia has witnessed a surge of local-level riots. Javanese and Sumatran cities were the first victims of local disturbances, which have had a contagious effect on the outer islan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riot process in Javanese cities and to search for cultural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them. After examining common features recent riots and in public explanations of them, I will locate these features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Javanese culture. It will be argued that collective violence which the traditional custom has permitted in certain circumstances provides people with a model for behaviors in the riots. They committed such crimes as robbery, assault and arson with a belief that they would not be legally responsible for these actions, as was the case in collective actions at the village-level.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provide a more balanced view to apprais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recent Islamic resurgence, and the continuing influence of traditional Javanese culture.